전국체전 주경기장 ‘목포종합경기장’ 위용 드러냈다

다음달 개막 앞두고 완공…연 면적 2만6468㎡ 에 관람석 1만 6468석
개·폐회식, 육상경기 열려…박홍률 시장 “스포츠 관광도시 도약 기반”

오는 10월과 11월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메인스타디움인 목포종합경기장이 완공됐다. 경기장은 지상 3층, 1만 6468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천연잔디 구장과 9레인의 육상트랙이 설치되는 등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오는 10월과 11월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메인스타디움으로 사용될 목포종합경기장이 완공됐다.

목포종합경기장에서는 전국체전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개·폐회식과 장애인체전 개회식, 육상경기가 진행된다.

시설 규모는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포함해 연면적 2만 6468㎡로, 주경기장은 지상 3층, 1만 6468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다.

경기장은 천연잔디 구장과 9레인의 육상트랙이 갖춰져 있는 공인 1종 육상경기장으로 조성됐다.

또 목포의 화합과 미래를 상징하는 열린 경기장을 표방해 설계됐으며, 그 중 지붕은 목포의 시조(市鳥)인 학을 형상화했다.

경기장 건립에는 국비 200억원, 도비 330억원을 포함해 총 116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공사는 지난 2018년 11월 목포종합경기장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2019년 2월 시작됐다. 44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모든 공정을 마무리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6일 열린 준공식 기념사를 통해 “제전에 참가한 선수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고의 경기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양대 체전의 성공개최 이후 앞으로 종합경기장은 시민들의 체육복지를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목포시가 국제적인 스포츠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청 김태효 100m ‘금 질주’

전국실업단대항육상대회 우승…올 시즌 세번째 금메달

광주시청 김태효가 7일 충남 서천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제34회 전국실업단대항육상대회 남자 1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광주시청 김태효(30)가 제34회 전국실업단대항육상대회 남자 100m에서 우승하며 올 시즌 전국대회 3관왕을 달성했다.

김태효는 7일 충남 서천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31로 최선재(서천군청·10초47), 김시온(인천시청·10초49)을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김태효는 지난 3월 2023 Amazing 익산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와 6월 나주서 열린 제27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이어 시즌 세 번째 전국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태효는 지난 6월 제27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결승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복근 파열로 두 달 동안 훈련을 못했다. 8월 초부터 훈련을 시작했고 전국체전을 대비해 예행연습 차원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예선에서 10초50으로 조 1위, 전체 3위로 결승에 오른 김태효는 부상 여파로 온전치 않은 컨디션임에도 결승서 우승을 차지하며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 100m 금메달 기대감을 키웠다.

김태효는 “6월 나주서 열린 경기에서 복근 파열로 정상 훈련을 소화하지 못해 전국체전을 대비해 컨디션 점검과 실전 감각 향상을 위해 이번 대회에 출전했는데 운이 좋아 금메달을 딴 것 같다”며 “남은 기간 컨디션을 100%로 끌어올려 전국체전에서 금메달로 광주 육상을 빛내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감독은 “김태효가 올해 전반기 막판 시합을 뛰면서 복근 부상으로 시달려 걱정됐는데 후반기 첫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 기쁘다”며 “태효도 컨디션이 올라가고 있고 김국영도 건재해 전국체전에서 남자 100m와 400m계주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여자배드민턴, 전국선수권 전 종목 입상

안혜원-이은희 복식 금메달
단체전·단식 배주영 동 2개

조선대 여자배드민턴팀이 2023 KB금융 연맹회장기 전국실업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금 1개와 동 2개를 획득했다. 왼쪽부터 임상준 코치, 이은희, 안혜원, 배주영 선수, 김동현 감독. 〈조선대 배드민턴팀 제공〉

조선대 여자배드민턴팀이 2023 KB금융 연맹회장기 전국실업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전 종목 입상 쾌거를 거뒀다.

안혜원·김혜선(이상 4년)·엄수빈(3년)·배주영·김민경(이상 2년)·이은희·이아영(이상 1년)으로 구성된 조선대 배드민턴팀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경남 밀양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대부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안혜원과 이은희는 복식에서 완벽한 호흡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안혜원-이은희는 2회전에서 이나린-이서연(군산대)을 2-0으로, 8강전서 지영빈-정유빈(부산외대)을 2-1로, 준결승서 천세연-최보라(경남대)를 2-0으로 연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안혜원-이은희는 지난 6일 결승서 윤선주-김애린(인천대) 조를 상대로 첫 세트를 접전 끝에 21-17로 이기며 기선을 제압했고, 2세트에서도 팽팽한 승부를 벌인 끝에 21-18로 승리하며 세트점수 2-0으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배주영은 여대부 단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배주영은 1회전 김민경(김천대)을 2-0, 2회전 이나린(군산대)을 2-0, 8강전 방주영(인천대)을 2-1로 각각 물리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하지만 5일 준결승서 박소연(부산외대)을 상대로 첫 세트를 21-11로 따냈으나 2세트(18-21 패)와 3세트(16-21)를 내리 내주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조선대는 여대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8강서 김천대를 3-0으로 완파한 조선대는 지난 1일 준결승에서 인천대를 맞아 매치 스코어 1-3으로 졌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테니스 황제’ 조코비치 골프 실력은?

이달말 라이더컵 프로암 올스타 매치 출전

테니스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23회) 보유자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사진)가 골프 실력 발휘에도 나선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7일 “조코비치가 27일 이탈리아 로마 인근에서 열리는 라이더컵 올스타 매치에 출전한다”고 보도했다.

라이더컵은 미국과 유럽의 남자 골프 대항전이다.

올해 대회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인근 마르코 시모네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조코비치가 나서는 올스타 매치는 대회 개막 전에 열리는 프로암 비슷한 성격으로 진행된다.

2010년 라이더컵에서 유럽과 미국 단장이었던 콜린 몽고메리(스코틀랜드)와 코리 패빈이 올해 올스타 매치 양 팀 단장을 맡았다.

조코비치 외에 ‘축구 스타’ 개러스 베일(웨일스)과 안드리 셰우첸코(우크라이나), 자동차 경주 포뮬러원(F1) 드라이버 카를로스 사인츠(스페인)도 라이더컵 올스타 매치에서 필드에 나선다.

조코비치는 “골프 전설들과 함께 라이더컵에서 티샷을 날리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I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잠
2관	타겟
3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4관	오펜하이머, 생츄어리: 마법의 소원나무
5관	일주일간 친구, 엘리멘탈
6관	잠
9관	오펜하이머
7관씨네커플	달짝지근해: 7510
8관씨네커플	콘크리트 유토피아, 달짝지근해: 7510, 밀수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극단 코끼리들이 웃는다
물질
일시 : 2023-09-15(금)~16(토)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원형극장(야외)
문의 : 062-613-8235

GAC 재개관 시리즈 - 포시즌4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with 손열음
일시 : 2023-09-16(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